

셀 모임 순서지 (2025년 11월 다섯째 주)

Welcome - 아이스 브레이크

☞ 뭐하면서 쉬는 걸 가장 좋아하나요?

Worship - 찬양

☞ 충만, 내 영혼의 그윽히

Word - sharing

1. 주일 설교 나누기

☞ 주제: 참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? (마가복음 2:23-3:6)

안식의 개념은 창조와 함께 창세 때부터 만들어진 개념입니다.
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제 4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첫 번째,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.
두 번째,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쉬는 날입니다.
세 번째, 안식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.
예수님은 형식적인 안식을 참 안식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.

첫 번째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.

성경은 분명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니,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라는 말입니다. 맞습니다.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.
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.
참된 안식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입니다.
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한 날의 주인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.
오늘이라는 한 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.
창조주이신 예수님이,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.

두 번째로,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십니다.

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. 이것은 너의 아픔을 나에게 내밀어라.
너의 숨기고 싶은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. 너의 오래된 상처를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.
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곧 회복되었습니다.
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. 손 마른 자는 손 뿐 아니라 삶이 회복되었습니다.
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.

세상이 주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.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.
우리 주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.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.

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. 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.

2. 적용

- 1)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나요?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나요?
- 2) 예수님께 가져가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? 어떻게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밀 수 있을까요?

Work – VIP 나누기 :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

⑤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

1. 제6차 예나주세미나에 큰 은혜를 베푸소서.
2. 셀과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.
3. 정기제직회와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소서.
4. 담임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.

충만

오직 주인

손경민 작사
손경민 작곡

무명이-어-도- 공허하지-않은 것은- 예수안에- 날만족함-이라
고난중-에-도- 견뎌낼수-있는 것은- 주의계획- 밀기때문-이라

가난하-여-도- 부족하지-않은 것은- 예수안에- 오직나는- 부묘함이
실패하-여-도- 일어설수-있는 것은- 예수안에- 오직나는- 승리함이

라 라 난 예수로- 예수로- 예수로- 충만하네- 난

예수로- 예수로- 예수로- 충만하네- 난 예수로- 예수로-

예수로- 충만하네- 영원한왕- 내안에- 살아계시네

내몸이약-해-도- 낙심하지-않은 것은- 예수안에- 난 완전함-이라

화려한-세-상- 부럽지-않은 것은- 난 예수로- 예수로- 충만함이

라 난 예수로- 예수로- 예수로- 충만하네- 세상모든- 것들도-

부럽지-않네 난 예수로- 예수로- 예수로- 충만하네- 영원한왕- 내안에-

두렵지-않네

살아계시네 난 네 영원한왕- 내안에- 살아계시네

손경민 디지털싱글 "충만" (2020.1.15)

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(통일 469)

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
하나님의 평강이-너의 마음과 생각을시키시리라
(절 4:7) WONDERFUL PEACE: 11.9.12.8.REF.
W. G. Cooper, 19th Century

보통으로

1.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 네
2.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인 보배로 다
3.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
4.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

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내 영혼을 고이싸 네
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
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네
우리 모두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 네

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

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

쉬운 기타코드(capo=1st) A♭→G D♭→C B♭7→A7 E♭→D Fm→Em